

전남의 맛과 멋, 유럽인 사로잡았다

獨 프랑크푸르트 강변축제 참가
농수산식품 판촉·관광 매력 홍보
도립국악단 공연 주무대 수놓아
유럽 SNS 서포터즈 20명 위촉



지난 27일까지 3일간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광변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독일 시민들이 전남의 맛과 멋을 즐겼다. <전남도 제공>

세계로 뽐내는 대도약 글로벌 전남이 200만 인파가 몰리는 유럽 최대 축제인 2023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광변축제에서 전남의 맛과 멋으로 한류의 신기류를 이끌며 유럽인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전남도는 지난 27일까지 3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박물관광변축제에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축제 운영단을 파견, 한국 종합 홍보 행사(Your Korea Festival)를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 기획·개최했다.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크푸르트시로부터 강변축제의 주빈으로 초청받은 전남도는 전남산 농수산식품 판촉, 우수 관광자원 홍보,남도전통예술 공연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남의 맛과 멋을 선보였다.

강변 축제장에는 홍보부스(‘전남도-Kitchen of Korea’)를 마련하고 남도음식 시식, 요리 체험, 경품 추첨 등 홍보·판촉 행사를 열었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독일 현지 전남 상품판매장에 입점한 김, 김치 등 다양한 전남산 우수 농수산식품이 유럽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축제 둘째 날인 26일 박창환 부지사가 남도김치의 진수를 손수 알렸다. 박 부지사는 고정석 프랑크푸르트총영사, 김상근 재독호남향우회장 등과 함께 전남산 김치 양념을 사용해 ‘남도김치 담그기’를 시연하고 축제장을 찾은 많은 유럽

인에게 시식 행사도 열어 남도김치의 깊은 맛을 전했다.

시내 로스마르크트 광장에는 ‘전남관광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전남 관광정보를 제공했다. 압화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현지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전남 해외관광객 300만 명 달성을 위한 ‘전남관광 유럽지역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 위촉식’도 축제 개막식에서 열렸다. 위촉된 영국,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에서 모인 20명의 글로벌 누리소통망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국가별 커뮤니티에 전남 관광 정보를 자국 언어로 공유하는 등 전남 관광을 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립국악단은 부채춤, 버구춤 등 남도의 전통 연희공연으로 매일 주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아 눈길을 끌었다.

박창환 부지사는 남도예술의 세계화를 기념해 프랑크푸르트 시측에 가야금을 전달했다. 이에 엘케 포이틀(Elke Voitl) 프랑크푸르트 부시장은 “기증받은 가야금이 향후 두 지역의 문화예술 교류를 촉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부지사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홍보부스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전남도가 케이(K)-컬처의 원류인 남도의 맛과 멋을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이번 축제에서 보여준 글로벌 전남의 찬란한 매력을 유럽 곳곳에 전파해 전남이 신한류 확산의 첨병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서남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모색

세한대 SRL레저특화사업단
9월 21일 목포서 심포지엄

세한대 SRL레저특화사업단이 오는 9월 21일 목포에서 전남 서남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박홍률 목포시장 등 외부인사와 해양레저관광 전문가, 교수, 관련 단체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청다오시 국제 요트축제 조직위와 청도군산문화체육발전유한공사가 ‘현황해권 발전과 한중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세일링 이벤트의 필요성, 세한대 SRL레저관광연구소가 ‘SRL레저관광 글로벌 개발 동향과 다도해권과 현황해권 가치 창조 전략’, 세한대 SRL레

저특화사업단이 ‘다도해권 해양레저관광 거점구축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적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생태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현황해권 생태관광 접근 방안’, 베이벨리 메가시티 민간합동추진단은 ‘현황해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베이벨리의 필요성과 연계 방안’을 각각 내용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각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서남권 해양레저관광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최미순 세한대 SRL레저특화사업단장은 “지난 13년간 축적해온 전남 서남권 해양레저관광 발전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5차례 연속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잠재력이 우리나라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4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전국체전 분위기 고조

전남도내 곳곳 홍보·문화 활동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는 육교 현수막 설치,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문구 송출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 전남 곳곳에 전국체전 홍보물이 채워지며 체전 성공개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9월부터는 주요 도내 거점 지역과 교통 요충지에 꽃탑, 홍보탑, 배너기 등 홍보시설물을 대규모로 설치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곳곳에는 전국체전 홍보물을 부착해 전국체전 도민 참여와 관심도 제고에 적극 나선다.

전남 전역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 찬 특색 있는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9월 12일 목포에서 대국민 프로그램인 공중과 방송의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10월엔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단체 공연으로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나주, 광양, 구

례, 영암, 영광, 장성에서도 개그쇼, 창작 오페라, 버스킹 등 전국체전 기념 문화행사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해상W쇼, 목포문학박람회, 대한민국예술축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다양한 역사·문화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공연·체험 행사도 잇따라 예정돼 있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북돋을 전망이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개최되는 체전인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전남만의 다채롭고 특색 있는 문화축제·공연으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마을공동체 영상기록 공모전...10월 16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2023 전남마을공동체 영상기록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의 역사·문화·사람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마을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전남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을 명소, 독특한 지역문화, 생태, 인물, 주민 활동과 삶의 현장 등 마을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happyi800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다. 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6일까지다. 높은 창의성과 전달력이 인정된 작품은 상장과 상금(대상 200만원)이 시상되며, 11월 열리는 2023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시상식과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는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마을의 자부심을 높이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될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자원봉사센터, 감동적 현장 이야기로 참여문화 확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전남대회

김복순 구례 사랑봉사단장 대상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한 ‘2023년 세상을 바꾸는 시간전남대회’에서 김복순 구례군 남도사랑봉사단장이 봉사 현장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 3회차 열린 세상을 바꾸는 시간전남대회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경험을 5분 동안 호소력 있게 청중에게 전달하는 자원봉사 사례발표 대회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주관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 1차 심사 후, 한 달간 개별 컨설팅, 발표 실전연습 등을 거쳐 진행된다. 자원봉사자의 콘텐츠 제작과 발표 과정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확산해 도민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1차 심사 선발전 11명의 자원봉사자가



수 년 동안의 활동을 감동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 전달했다. 평가는 전문 심사위원 4명과 함께 도내 센터와 대학에서 추천한 청중평가단 50명이 참여해 결과에 대한 공감도를 높였다.

대상을 차지한 김복순 단장은 ‘봉사의 씨앗, 도

시락으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오랜 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겪었던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감동과 호소력 있게 풀어내 청중평가단과 심사위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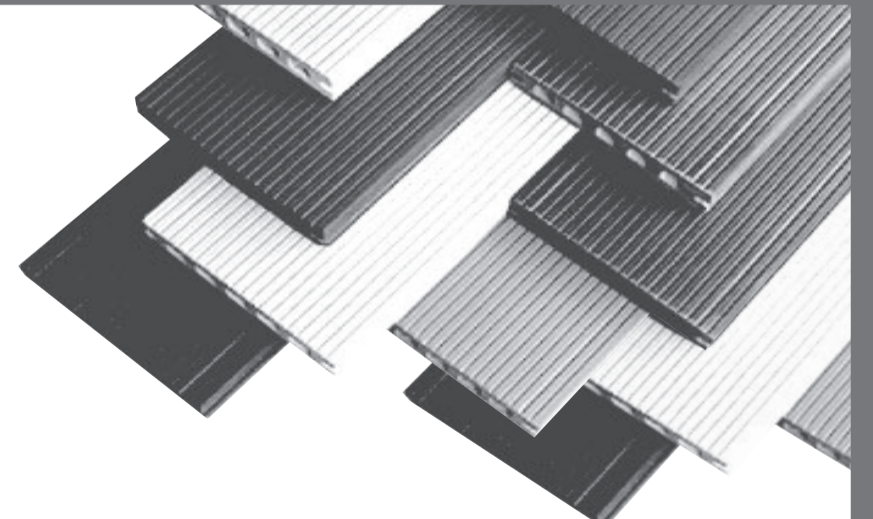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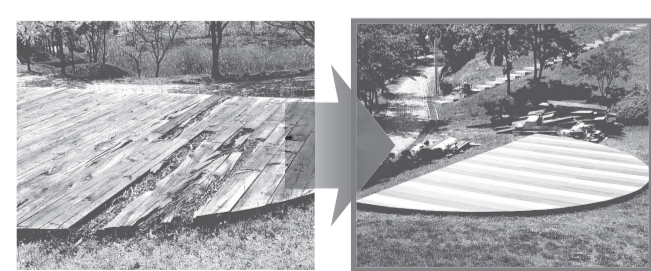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